



2020년 1월 26일(제966호)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그리스도의 시론”

하나의 글을 쓸 때, 그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글의 본론과 결론에 집중하고 서론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 전체에 있어서 서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이 그 글 안에서 꼭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론과 결론을 먼저 쓴 후에 마지막으로 서론을 쓰기도 합니다.

글 전체에 있어서 서론의 역할은 이러합니다. 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왜 이 글을 쓰는지 설명하며, 이 글의 의의를 예상해보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서론은 글 전체의 방향성과 필요성, 그리고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서론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글을 쓴다는 것은 서론이라는 뼈대에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쓴 글은 서론만 읽어봐도 글 전체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께서는 어떠한 서론으로 당신 말씀의 문을 여셨을까요? 어떠한 서론으로 당신 말씀의 방향성과 필요성, 그리고 목적을 제시하셨을까요?

바로 그 서론이 오늘 복음에 등장합니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첫 번째 말씀, 당신 말씀 전체의 서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4,17)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서론입니다. 이 안에 그분 말씀 전체의 방향성, 필요성,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하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회개를 바라셨습니다. 이 말은 짧지만 예수님의 서론으로써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되새기고 묵상하며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말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말입니다.

한 글의 서론으로 글 전체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분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고서 세상에 나아갑시다. 그분의 서론을 내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분의 서론 속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담겨 있음을 함께 생각합시다.



상주병(리지르) 신부  
소성(17시턴) 상당 주일

**제 1 특 시** 이사 8,23ㄷ-9,3  
**회 답 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제 2 특 시** 1코린 1,10-13,17

**복음 본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 음** 마태 4,12-23

**영 성 제 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이중배 마르티노



**성인명:** 이중배 마르티노 (李中培 Martin)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51?-1801년

이중배(李中培) 마르티노(Martin)는 경기도 여주의 양반 집안 출신으로, 본디 용기와 힘이 남보다 뛰어나고 호쾌한 기개가 있었다. 반면에 그에게는 난폭하고 성을 잘 내는 성격도 있었는데, 이러한 성격은 그가 천주교에 입교한 뒤로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 마르티노가 처음 천주교 신앙에 대해 알게 된 것은 1797년이었다. 이때 그는 사촌인 원경도 요한과 함께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김건순 요사팍에게 천주교 교리에 대해 듣고는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부친과 아내에게 교리를 전하였고, 이후로는 교회의 지시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특히 그는 누가 알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였는데, 그의 용감한 성격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1800년의 예수 부활 대축일에 이 마르티노는 사촌인 원 요한과 함께 동료의 집으로 가서 부활 삼중 기도를 바치고 성가를 부르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천주교 신앙을 뿌리 뽑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던 여주의 관장이 포졸들을 풀어 은밀히 신자들을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 천주교 신자들이 모임을 하고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고, 관장은 곧장 포졸들을 그곳으로 보내 신자들을 모두 체포하도록 하였다.

관청에 끌려가자마자 이 마르티노 일행은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그들은 자주 이 마르티노의 굳센 용기와 격려로 힘을 얻어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마르티노의 옥중 생활은 6개월이나 계속되었다. 그동안 그는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으나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함께 있는 신자들이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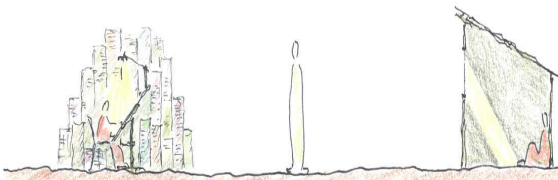
1800년 10월에 이 마르티노와 동료들은 경기 감영으로 이송되어 다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에 신유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경기 감사는 옥에 갇혀 있는 신자들을 다시 끌어내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 마르티노는 이에 굴하지 않았으며, 동료들과 함께 온갖 유희를 뿌리치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 나갔다. 감사는 마침내 최후 진술을 받아서 조정에 보고하였고, 조정에서는 ‘고향으로 돌려 보내 처형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마르티노는 동료들과 함께 여주로 압송되어 1801년 4월 25일(음력 3월 13일)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의 나이는 50세가량이었다.

### 복 음 록 상

- 베냐민(베드로) 신부 / 예수회

#### 함께 가자

도면판 앞에서	당신께서 찾아와,
미래를 걸었던 내게.	부르셨지.
자취방 안에서	"영길아!
외로움을	함께 가자.
맛보던 내게.	나와,
	함께 있자."라고.



상화이야기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찬 기적



라피엘로  
1515년 제작  
종이에 템페라  
360x400cm  
런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영국

라파엘로가 데피스트리(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는, 벽에 걸 수 있는 직물 그림)를 위한 밑그림으로 그린 그림이다.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다. 라파엘로는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힘겹게 들어 올리는 제자들을 근육질의 남성으로 그렸고, 인물들의 모습이 물 표면에 비친 것까지 표현하였다. 사실적인 동물묘사로 인해 물고기와 새의 종류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석양의 풍경과 함께, 놀라서 보트를 건너편 제자로 인해 옆 인물의 옷깃이 휘날리는 모습까지 세심하게 그려내었다.

“예수님 시대에 갈릴래아는 게으른 사람들이 모여 불법을 저지르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너무나 팍팍한 곳이었기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갈릴래아를 멀리 하였습니다. (중략) 예수님께서 하느 나라를 선포하신 곳은 바로 갈릴래아였고, 공생활의 대부분도 갈릴래아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가난한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들은 대개가 아프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내세울 만한 능력도 기술도 명예도 없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기 시작하셨지요. (중략) 다만 우리가 읽고 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회적 약자들의 만남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중략) 예수님께서 갈릴래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이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고, 그 연민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기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처지를 살피는 것에 지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 기사 발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주일: 지상대 빅기표 신부

◆ 2020년 제3회 교구청년대회

- 일정: 2020년 2월 17일(월)~21일(금)
- 대상: 교구 내 20세~35세 청년  
(군 가족, 현역 병사 및 간부)
- 장소: 제주도 성지순례
- 참가비: 15만원
- 문의: 군중교구 교육국(02-749-1921, 내선 4번)
- 카카오톡: 천주교 군중교구청 교육국(@miledu)

◆ ‘군중의 시간’ 인내

-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를 따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